

풍산초 3학년 심동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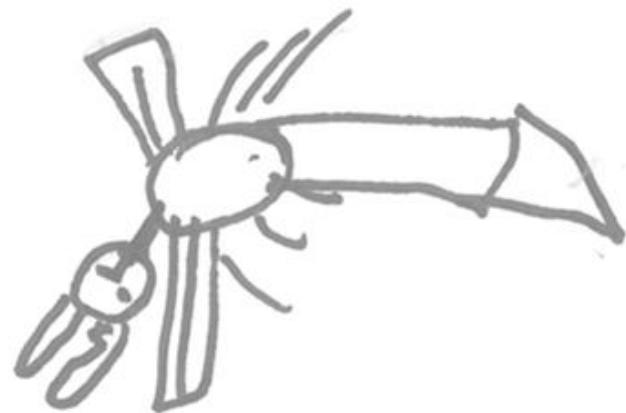
[소개의 글]

저는 풍산초 3학년 어린이 작가 심동민입니다.  
사람들이 착해지면 좋을 것 같아서 이 그림책을 만들게 되었습니다.

이 그림책은 나쁜 벌이 착해지는 내용입니다.  
엄마와 착한 벌은 나쁜 벌이 착해지기를 바랐습니다.

뭐라고 말했는지는 책을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.

여러분~ 이제부터 엄마 말씀 잘 듣고,  
형, 누나 말도 잘 들으세요. 그리고 착하게 지내세요.



| 지은이 | 심동민

| 펴낸곳 | 풍산초등학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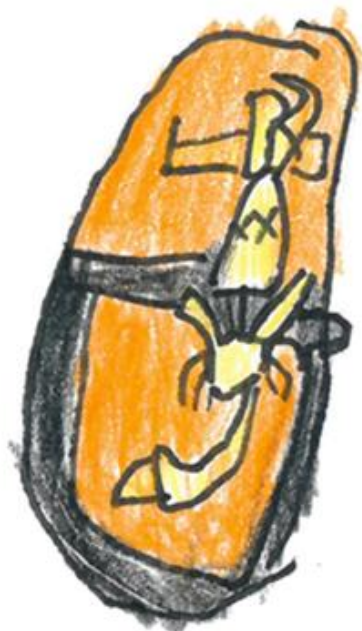
| 발행일 | 2020년 10월 28일

이 책의 저작권은 지은이 심동민과 풍산초등학교에 있습니다.

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전재 및 복제를 금합니다.



①



나쁜 벌이 어릴 때 엄마 벌은 많이 아팠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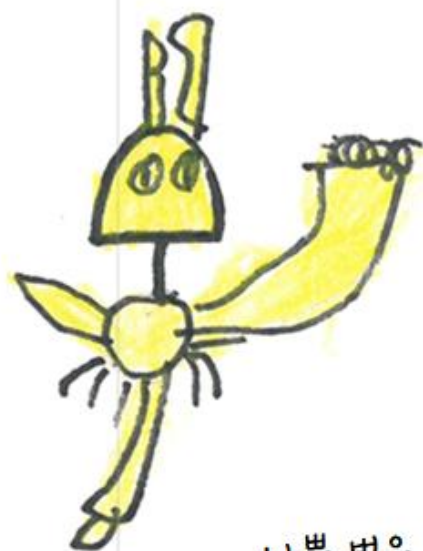


②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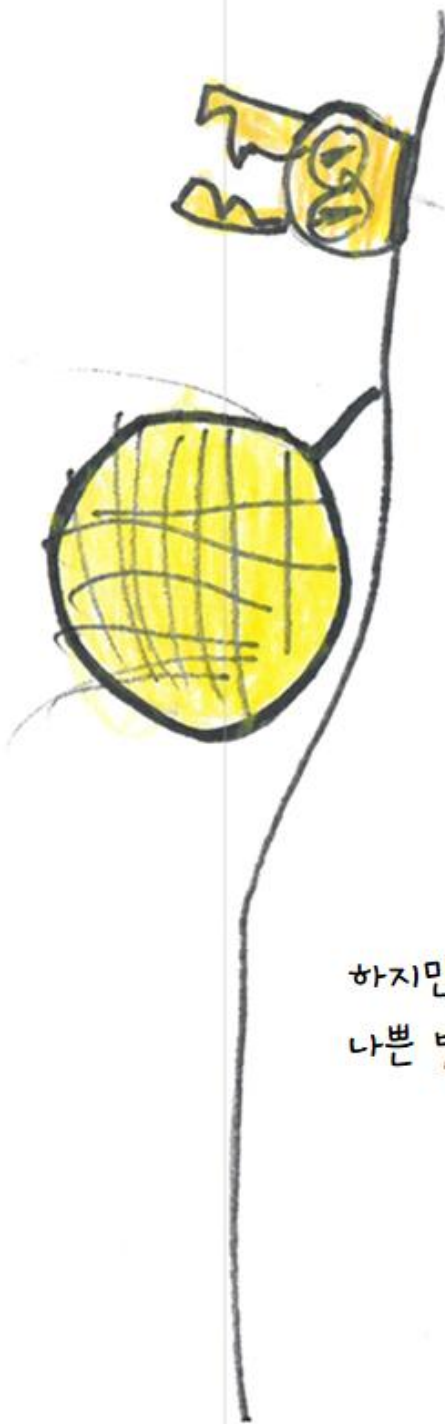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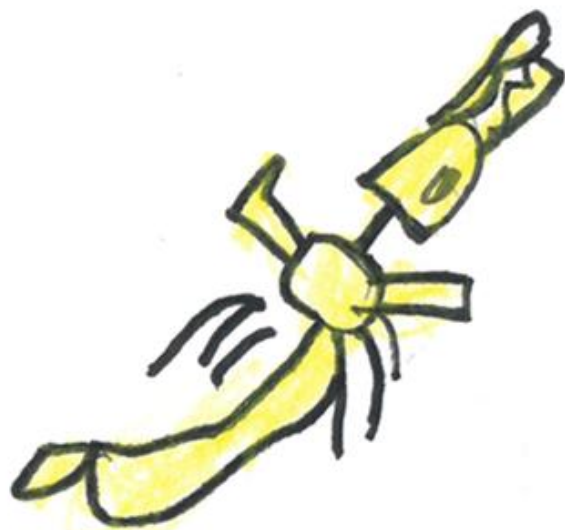


“너 나쁜 짓 그만하고 이제 착해져야지.”  
엄마 벌은 나쁜 벌에게 이 한마디를 남겨두고  
돌아가셨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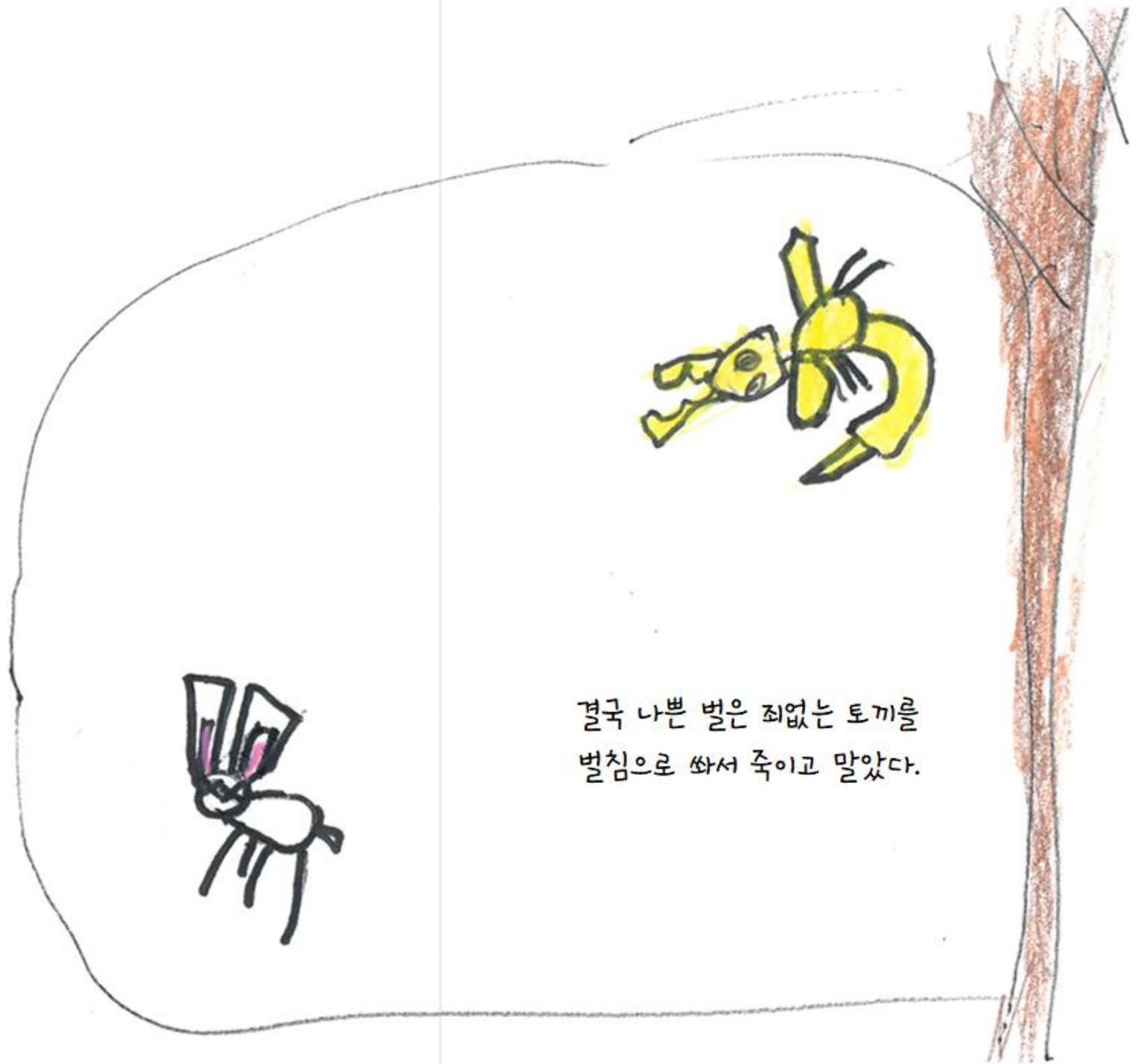
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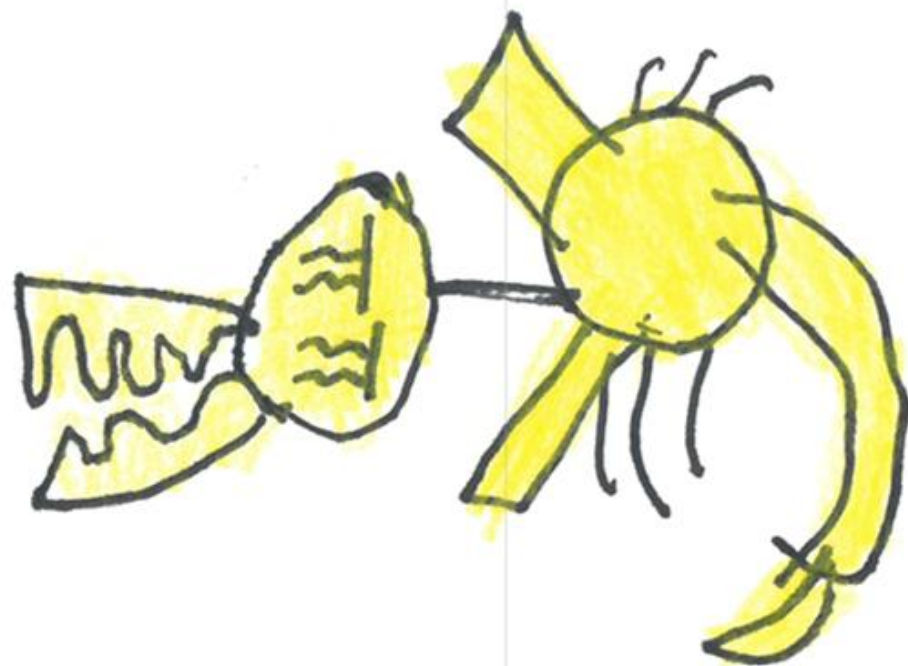
나쁜 벌은  
이제 다시는 나쁜 짓을 하지 않겠다고 결심했다.



하지만 친구인 더 나쁜 벌은  
나쁜 벌에게 자꾸 나쁜 짓을 하고 놀자면서 꼬셨다.



결국 나쁜 벌은 죄없는 토끼를  
벌침으로 쏘아서 죽이고 말았다.



순간 벌은 너무 후회가 되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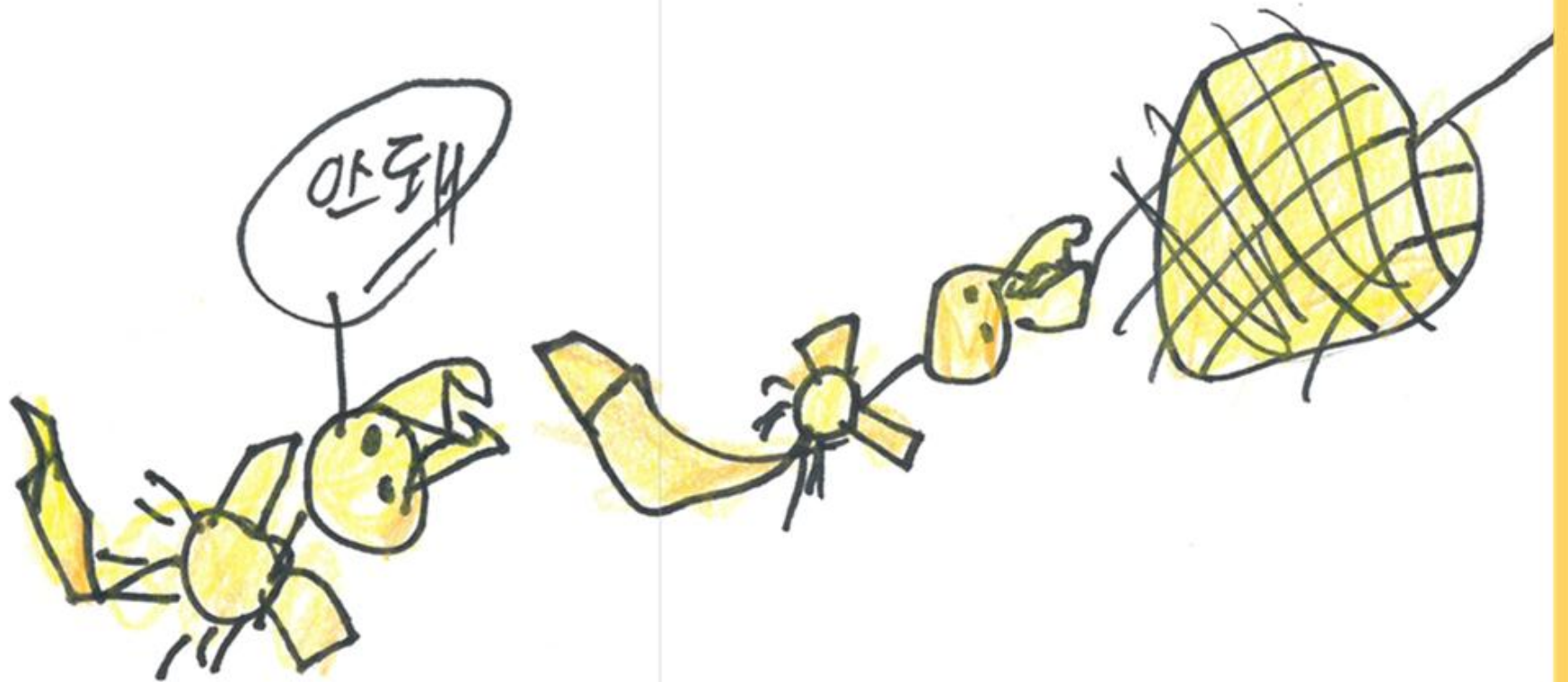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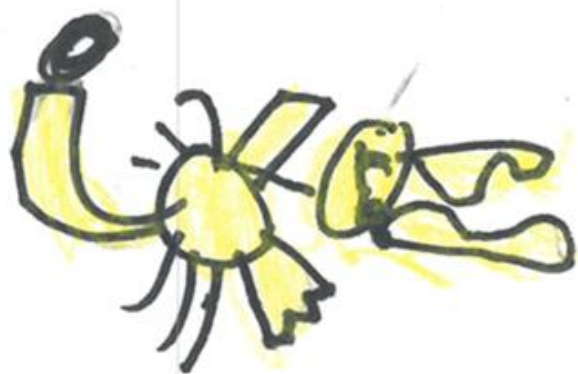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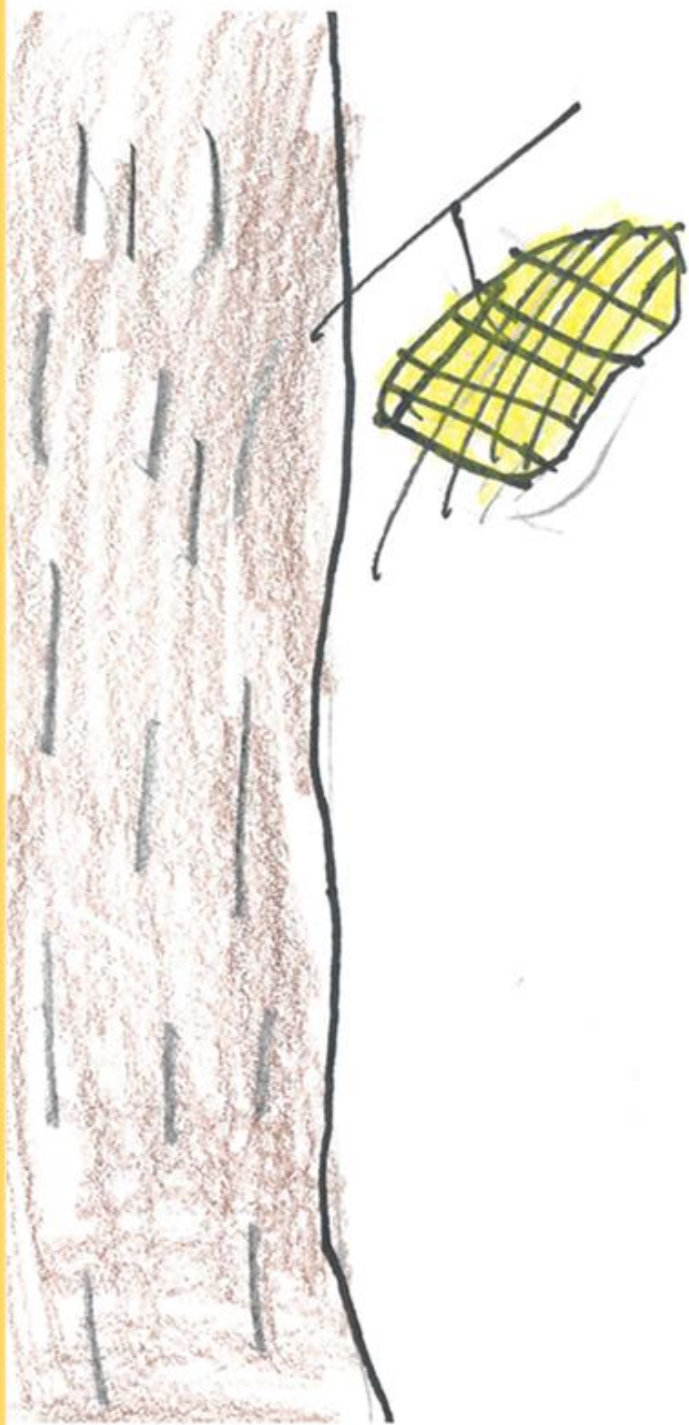
어느 날 나쁜 벌은  
우연히 어떤 지하실에 꿀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 
꿀을 훔치러 갔다.



거기서 만난 착한 벌은 나쁜 벌에게

나쁜 짓을 해서는 안된다는 말을 했다.





이 말을 들은 나쁜 벌은 엄마 생각이 나서 울음을 터뜨렸어.  
지금까지 자신이 한 나쁜 짓을 후회했어.  
그 순간 까맣고 뾰족했던 독침이 하얗고 둥그래졌어.



오랜만에 엄마 무덤에 찾아간 나쁜 벌은  
엄마의 환상을 만났어.  
그리고 엄마에게 말을 했어

“엄마 나 이제 나쁜 짓 안해. 엄마 소원이 이루어졌어.”





이제 착한 벌이 된 나쁜 벌은  
다른 꿀벌들이 꿀을 따는 것을 도와주며  
착하게 살게 되었다.

